

<인터뷰> 한진해운 장비관리팀 전병진 부장

<인터뷰> 한진해운 장비관리팀 전병진 부장

한진해운(www.hanjin.com)은 지난 98년 국적선사로는 최초로 컨테이너 및 샤시 등 장비 관리를 담당하는 장비관리팀을 물류부내에 신설했다.

장비관리팀이 신설된 98년 이후 장비수리비 단가가 전년대비 30달러 가량 인하되어 99년 한해에만 약 600만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장비관리팀원 전원이 IICL 컨테이너 국제검사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현장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선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장비관리팀 전병진 부장을 만나 장비관리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 한진해운 장비관리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한진해운은 자회사인 DSR-Senator의 물류부문 업무를 흡수하여 통합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계 4대 컨테이너 보유 규모인 53만teu를 관리하고 있다.

장비관리팀은 53만teu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비롯, 샤시장비를 신조생산 설계 및 제작품질 관리에서부터 수출입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보수정비관련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장비의 손상실관리를 담당하는 팀이다.

특히, 한진해운은 釜山 감천, 감만, 광양 등에 자가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 터미널장비에 대한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지난 98년 장비관리팀이 신설된 후 비용절감 등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인데 어느 정도 인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화물의 컨테이너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당시는 선사 입장에서 컨테이너, 샤시 등의 장비관리는 주요 관심사항과는 동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IMF 이후 선사에게 비용절감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물류비용 절감 필요성이 절실해 졌으며 장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보유량 증가와 효율적인 장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998년 6월 국적선사 최초로 물류부분 조직내에 별도의 팀인 장비관리팀을 신설하게 되었다.

장비관리팀이 신설된 이래 전년대비 장비수리비 단가가 30달러 가량 인하되어 매년 약 600만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금년에는 세나토라인의 장비관리도 함께 관장하게 되어 약 1,000만달러의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 한진해운 장비관리팀의 특징과 강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해 한진해운 장비관리팀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팀원 전원이 IICL 컨테이너 국제검사증을 획득하여 업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장비관리팀원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한 것은 물론 현장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크니컬한 조직이라는 것이 큰 강점이다.

한진해운 장비관리팀은 국적선사 최초로 국제 표준화 보수정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리업체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자체 장비관리 전산시스템(NIS M&R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Digital Photo를 이용한 수리 승인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선진형 인터넷과 디지털 혼합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수리설비에 대한 점검과 작업실적을 평가하고 자체 검사기준에 의한 표준수리 Man-hour Schedule을 제정하는 작업장 품질심사제도 FQAP와 신조생산 품질관리제도인 Quality Inspection Program 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컨테이너 재생작업과 Floor Coating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업계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선사로 알려져 있다"

◆ 장비관리팀은 지난 5월 26일, 27일 양일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컨테이너장비 M&R (Maintenance Repair) 세미나 를 개최했는데 내용과 성과는?

"세미나에는 한진해운 오창권 상무를 비롯하여 본사와 국내 본부/지점, 장비관리 대행 전문업체인 한실흥산, 컨테이너 제작사 진도, 한국선급 및 7개 국내수리업체에서 총 35명이 참석하여 선사의 장비관리 기본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사들간의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최적 실무안을 함께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최근의 중국에 의해 침체된 컨테이너제조/보수관련 산업을 첨단 기술력과 협력업체들간의 단합된 공동연구체제 구축으로 재건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여년동안 컨테이너 장비관리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로써 장비관리 업무추진시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국적선사 장비관리 업무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컨테이너 등 장비관련 전문기구의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터미널 하역능력 및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운강국이지만 장비관리 분야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컨테이너, 샤시 등 장비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로써 전문가의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국제회의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06-08 송성민]

© 한국해운신문 (<http://www.maritimepress.co.kr>)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한국해운신문 주식회사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해운신문(주)

대한민국 제1의 해운매체 | 100-230 서울 중구 수표동 56-9 대동B/D 303 TEL 02)2285-5571~4
Copyright 1996-2005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